퀀틴전시 플랜

[다음주 시장은?] KOSPI 5000 시대. 상승 모멘텀 점검

[투자전략팀]

정해창 / Strategist Jr.
haechang.chung@daishin.com

이경민 / Strategist
kyoungmin.lee@daishin.com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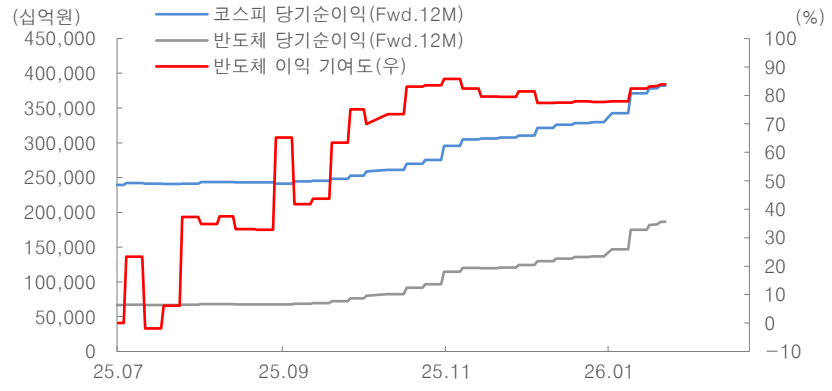
美 통화정책 스탠스와 반도체 사이클 확인. 기대를 넘어서는 결과를 보여줄까?

- 26년 실적 전망의 가파른 상향조정으로 코스피는 글로벌 증시 중 최고 수익률을 기록 중. 실적에 기반한 상승이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도 상존하는 상황
- 다음주 29일 1월 FOMC 주목. 코스피와 글로벌 증시의 상승 사이클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2026년 대세 상승을 주도하는 Policy Mix의 한 축인 연준의 금리인하 사이클이 지속될 것이라는 컨센서스가 유지되는 것이 중요. 1월 기준금리는 동결이 기정사실화. 시장은 인하 자체 보다는 방향성과 최종 금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
- 12월 근원 CPI가 둔화됨에 따라 연준의 정책적 운신의 폭이 확보된 상태. 성명문과 기자회견에서 최근 물가상승 둔화와 고용시장에 대한 평가, 점도표에서 나타났던 금리인하 사이클의 지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 또한 주목, 시장은 연준의 독립성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완화적 통화정책을 원하는 이중적인 기대감을 반영. 파월 의장은 정치적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아 왔으나 최근 본인에 대한 형사고발 이후 이례적 공식 성명을 발표. 이에 대한 파월의장의 입장과 의도치 않은 비언어적인 표현까지 시장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 다음주 본격적인 실적시즌 시작. 특히 글로벌 AI 기업들의 수익화 전망에 따라 산업 사이클의 지속성이 결정될 것이고, 자본지출 전망에 따라 반도체 산업 전반의 인프라 투자 수혜 기대감이 직접적으로 변화할 수 있음. 28일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메타, 29일은 아마존, 애플 등 M7 중 5개의 기업의 실적발표가 다음주에 집중. 서비스 나우, 샌디스크, GE버노바 등 관련 기업들의 실적 또한 관심. 특히 올해부터 에이전트 AI를 중심으로 현금흐름 전망이 실질적으로 증가하는지 여부도 확인
- 국내에서는 29일 10시 동시간대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 반도체 대표 기업들의 실적 가이던스와 전망에 따라 상승 탄력의 지속성이 좌우될 것. 최근 반도체 슈퍼 사이클과 실적 기대, 전망 상향조정 등이 코스피 선행 EPS를 레벨업으로 이어져 코스피 사상 최고치 행진, 5,000p 돌파시도가 가능했기 때문
- 최근 코스피 가격 부담 증가, 상승 피로 누적. 단기 과열 해소와 매물 소화 과정은 감안해야하나 대세 상승은 지속될 전망. 실적 전망과 선행 EPS의 상승으로 KOSPI 밸류에이션은 정상화 수준. 현재 코스피 12개월 선행 P/E는 10.48배로 3년 평균(10.3배)를 소폭 상회. 선행 EPS가 꺾이기 전까지 KOSPI 상승추세 지속 전망
- 상승이 가파랐던 만큼 급등 업종에 대한 차익실현과 저평가 업종에 대한 순환매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 현재 실적대비 저평가된 소외 업종으로는 화장품, 에너지, 필수소비재, IT하드웨어 업종 등 내수주와 건강관리 업종 제안. 반도체 업종도 여전히 견조한 펀더멘털과 밸류에이션을 유지 있기에 조정 시 비중확대 가능

퀀틴전시 플랜 자료는?

퀀틴전시 플랜 자료는 대신증권 리서치 소속 **퀀트**, **전**략, **시**황 애널리스트의 현재 시장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담아낸 자료입니다. 매일 이슈에 대한 분석과 시장 리뷰, 확인해야 할 데이터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H 25 이후 코스피 순이익 증분에 대한 반도체 업종의 기여도는 84%로 압도적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KOSPI, 업종별 수익률 추이

주요 지수	현재가	등락율(%)						
	(p)	1D	1W	1M	3M	6M	12M	YTD
KOSPI	4,953	0.9	3.2	20.6	27.5	56.2	94.4	17.5
에너지	5,258	2.7	0.1	8.3	10.7	19.9	45.6	10.4
화학	4,914	5.6	6.7	6.0	1.4	21.1	33.9	9.8
비철,목재	8,128	-4.8	5.2	10.4	19.5	39.9	74.1	14.9
철강	2,520	2.6	3.0	15.8	14.3	7.8	34.3	16.1
건설,건축	1,720	-1.2	0.8	10.6	14.1	12.9	59.4	13.1
기계	10,536	-0.3	1.2	14.0	16.1	48.1	164.7	17.6
조선	10,194	-2.2	-2.7	15.0	4.5	42.9	104.1	16.9
상사,자본재	4,356	0.1	0.5	30.7	36.3	57.9	171.3	25.5
운송	1,952	1.1	1.6	10.9	14.4	5.8	24.1	10.8
자동차	17,130	-4.1	13.3	46.5	60.9	88.4	92.6	44.5
화장품,의류	5,213	4.1	6.6	1.8	4.0	-3.3	31.0	6.3
호텔,레저	2,236	0.8	1.5	-3.4	1.5	-6.5	28.6	-3.3
미디어,교육	845	1.6	6.0	10.0	18.7	16.7	46.6	7.2
소매(유통)	2,158	0.5	1.6	3.0	15.0	6.0	40.2	7.1
필수소비재	6,877	0.7	1.4	-1.4	0.9	-2.8	27.5	1.0
건강관리	11,083	0.2	-3.7	3.4	20.6	23.0	26.3	4.7
은행	2,818	0.4	3.5	3.9	11.3	11.1	54.6	5.3
증권	2,469	2.1	1.7	9.8	7.8	14.8	78.8	10.0
보험	10,702	0.2	5.9	2.8	6.8	11.9	58.6	3.0
소프트웨어	7,348	1.3	-0.7	4.0	-0.7	1.0	25.8	2.6
IT하드웨어	1,466	2.9	-1.4	6.5	29.8	77.3	94.5	7.0
반도체	25,494	1.9	3.8	34.8	54.9	146.6	195.7	22.7
IT가전	2,329	8.9	17.2	19.4	15.7	56.8	34.1	25.7
디스플레이	756	3.6	2.9	7.0	-10.6	26.8	27.4	7.2
통신서비스	399	0.1	6.2	7.6	9.1	1.9	22.5	8.6
유틸리티	1,813	-2.1	19.0	28.3	36.8	53.0	133.7	33.5

KOSPI, 업종별 YTD 수익률

주: Top 5, Bottom 5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글로벌 밸류에이션 테이블

권역/국가	P/E			P/B			ROE(%)			12M fwd EPS Revision		
	2025년	2026년	12M fwd	2025년	2026년	12M fwd	2025년	2026년	12M fwd	1W	1M	속도
전세계	22.3	19.4	19.1	3.6	3.3	3.2	16.1	16.9	17.0	0.2	1.3	
선진국	23.4	20.5	20.2	3.9	3.6	3.5	16.7	17.5	17.5	0.0	0.6	
신흥국	16.6	13.7	13.6	2.2	2.0	2.0	13.3	14.5	14.5	1.2	5.5	
북미	26.0	22.5	22.1	5.2	4.7	4.6	20.2	21.0	21.0	0.0	1.5	
유럽	17.6	15.7	15.6	2.4	2.2	2.2	13.6	14.3	14.3	-0.3	0.4	
퍼시픽	18.5	17.1	17.1	1.9	1.8	1.8	10.2	10.5	10.5	-0.8	-0.4	
라틴	10.9	10.8	10.6	2.0	1.8	1.8	18.1	16.8	16.9	0.4	2.3	
EM 유럽	10.7	9.3	9.2	1.5	1.3	1.3	13.8	14.3	14.3	-0.6	0.4	
EM 아시아	18.1	14.4	14.4	2.3	2.0	2.0	12.5	14.0	14.0	1.6	6.9	
선진 시장												
S&P 500	26.2	22.7	22.2	5.4	4.8	4.8	20.6	21.4	21.4	0.0	1.2	
NASDAQ	35.8	28.0	27.1	7.8	6.7	6.5	21.9	23.9	24.0	0.2	2.4	
프랑스	18.5	15.6	15.5	2.1	2.0	1.9	11.2	12.5	12.6	-0.2	0.6	
독일	17.8	15.6	15.3	1.9	1.8	1.8	10.9	11.6	11.8	-0.2	1.2	
영국	15.0	13.6	13.5	2.3	2.1	2.1	15.1	15.6	15.7	0.3	1.0	
일본	18.3	16.8	17.0	1.8	1.7	1.7	10.1	10.3	10.3	0.3	1.6	
신흥 시장												
중국	14.6	13.0	12.9	1.6	1.5	1.5	11.1	11.5	11.5	0.0	2.2	
인도	25.3	21.5	22.1	3.7	3.3	3.3	14.5	15.2	15.1	-0.2	0.9	
한국	16.5	10.0	9.9	1.8	1.6	1.6	11.2	15.8	15.7	5.9	20.0	
대만	23.2	18.8	18.5	4.2	3.7	3.7	18.0	19.8	20.2	3.5	6.1	▲
브라질	9.3	9.4	9.3	1.7	1.6	1.6	18.9	16.9	17.0	-0.8	-0.4	

기준일: 2026.01.21
자료: I/B/E/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글로벌 밸류에이션 테이블(Z-Score, ○: 2년 평균 기준, ●: 5년 평균 기준)

권역/국가	PE	Z-Score								
		-2이하	-2 ~ -1.5	-1.5 ~ -1	-1 ~ -0.5	-0.5 ~ 0	0 ~ 0.5	0.5 ~ 1	1 ~ 1.5	1.5 ~ 2	2이상
전세계	19.1								○ ●		
선진국	20.2								○ ●		
신흥국	13.6								●	○	
북미	22.1							○	●		
유럽	15.6								●		○
퍼시픽	17.1									●	○
라틴	10.6									●	○
EM 유럽	9.2										○ ●
EM 아시아	14.4							●	○		
S&P 500	22.2							○	●		
NASDAQ	27.1					○ ●					
프랑스	15.5							●		○	
독일	15.3								○ ●		
영국	13.5									●	○
일본	17.0									●	○
중국	12.9							●	○		
인도	22.1					○	●				
한국	9.9					●	○				
대만	18.5								○ ●		
브라질	9.3									●	○

기준일: 2026.01.21.
자료: I/B/E/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글로벌 주요국 EPS Growth(% YoY)

권역/국가		2025년	2026년	2027년	26-27년 평균
권역(대)	전세계	10.4	15.1	14.0	14.5
	선진국	9.8	14.0	13.9	14.0
	신흥국	13.7	21.2	14.1	17.7
권역(소)	북미	14.0	15.5	15.2	15.4
	유럽	0.5	11.9	12.1	12.0
	퍼시픽	5.3	8.6	8.9	8.8
	라틴	10.8	1.4	12.7	7.1
	EM 유럽	23.7	14.8	12.1	13.5
	EM 아시아	13.0	25.1	14.9	20.0
선진국	S&P 500	13.1	15.5	15.4	15.5
	NASDAQ	27.8	27.8	20.5	24.1
	프랑스	-7.4	18.6	11.3	15.0
	독일	2.0	13.7	15.4	14.5
	영국	4.4	10.4	11.0	10.7
	일본	8.0	8.9	9.8	9.3
신흥국	중국	2.5	12.5	14.8	13.6
	인도	11.4	17.6	14.8	16.2
	한국	38.8	64.7	11.8	38.3
	유럽	0.5	11.9	12.1	12.0
	브라질	6.8	-1.6	14.6	6.5

기준일: 2026.01.21
자료: I/B/E/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 조 1 항 5 호 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 정해창, 이경민)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 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